

# 고한승의 문학적 행로

최명표\*

|| 차례 ||

- I. 서론
- II. 문단사적 공로와 문학적 허사
  - 1. 문학적 생애
  - 2. 다다이즘의 소개
  - 3. 문재의 방만한 소비
- III. 결론

## 【국문초록】

고한승은 한국 문단의 형성에 공을 남겼다. 특히 그는 1924년에 다다이즘의 전신자 역할을 자처하였고, 다다리스트인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다이즘에 입각한 작품도 발표하지 않았고, 다다리스트다운 행동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런 탓에 그는 주장으로 일관하다가 불과 2년 만에 다다이즘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는 시, 소설, 극본, 아동문학 작품을 발표하면서 대중가요도 작사하였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느라 문재를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여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상당량의 부를 축적하고 세속적 출세의 길을 걸었다. 일제에게 협력하여 의원 등을 지냈고, 비행기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고, 반민족행위자로 처벌되었다. 그 후 그는 종적을 감추었다. 본고는 그가 문학적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다이즘, 아동문학, 문재의 소비, 개성, 친일.

---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I. 서론

한국 문단의 초창기에 활동한 작가들을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거론되지 않은 경우를 접하게 된다. 그가 성인 문학뿐 아니라 아동문학을 겸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말하자면, 그는 문단의 초기라서 장르를 불문하고 활발히 활동했으나, 연구자들은 장르에 따른 연구를 고집하여 그를 외면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태도는 한국문학 연구자들에게 팽배하다 못해 일반화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작가들이 연구자들의 분류에 따라 특정 장르에 국한된 채 논의된다. 또한 작가들 중에는 문학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제출하지 못했을망정, 문단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거명되어야 할 작가들이 있다. 그들은 헌신적인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논의선상에서 배제되고 만다. 이런 연구 풍토는 한국문학사의 양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질적 체계조차 위협하게 된다.

문학사는 소수 작가의 성과물이 아니다. 개별적인 문학작품은 작가의 독립적 활동의 결과로 승인될 수 있을지라도, 문학사는 무수한 작가와 작품이 적층된 것이다. 문학작품이나 작가는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필히 문학사의 범주 내에서만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작금에 이루어지는 유명작가 중심의 연구가 동어반복적 성과의 재생산에 부딪힌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학사에서 호출하는 작가들의 성취수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문단을 이루어 활동한 작가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1920년대의 한국 문단은 채 성숙되지 않았던 탓에, 다양한 문학사조가 수입되고 여러 작가들이 문학작품의 생산 대열에 동참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문학사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만큼 미약하고 수수했을망정, 그들의 움직임은 한국 문단의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 문학 연구의 질적 풍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공과를 헤아려 볼 이유는 충분하다.

이러한 사례에 제격인 당사자가 고한승이다. 서원 고한승(曙園 高漢承, 1902~1974?)은 개성의 부호 고도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여느 유학 생들처럼 문학을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1920년대에 그는 다다이즘을 소개하여 한국 시단을 다양화하느라 열심이었다. 또 그는 시와 소설, 연극, 동화, 대중가요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활발히 활동하였다. 특히 그가 색동회와 『어린이』의 편집에 관여하는 등, 아동문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전무한 것을 보면 이상할 정도이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해방 후의 종적이 묘연한 그의 행적을 가능한 한 상세히 되살려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II. 문단사적 공로와 문학적 허사

### 1. 문학적 생애

고한승은 개성제일공립보통학교를 마치고 상경하여 보성고보를 졸업한 후, 일본 니혼대학에 유학하였다. 그의 본격적인 문학 활동은 일본 유학 중이던 1920년 극예술협회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1921년 5월 그는 동경에 유학중이던 개성 출신 학우들로 조직된 송경학우회의 일원으로 개성에서 학술강연과 연극에 출연하였고<sup>1)</sup>, 1923년 7월에는 동경고학생으로 구성된 형설회<sup>2)</sup>의 순회극단에 포함되어 공연에 참가했다.<sup>3)</sup> 이때 그가 써서

1) 송경학우회원은 김성형, 공진형, 공진항, 공진태, 장희순, 고한승, 김승영, 진장섭, 유기풍, 손인순, 우용, 마상규, 윤광수, 하동욱 등이다.(『조선일보』, 1921. 5. 29)

2) 형설회는 1922년 1월 2일 동경에서 유진걸 등이 ‘해외에 있는 조선 노동자와 고향성의 애호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기한 단체이다.(『동아일보』, 1922. 2. 3)

상연한 작품 『장구한 밤』은 “이상적 신천지를 개척하라고 고민하면서도 전통적 인습에 끌리어 점차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러가는 현대인의 비애를 기탄없이 적발하여 보는 자로 하여곰 이똥은 심정을 금치 못하게”<sup>4)</sup>한 작품으로, 입센과 하우스프트만의 영향을 받아 쓴 조선 사람의 창작 각본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칭찬받았다.

고한승은 연극 활동을 발판으로 문학관에 뛰어들었다. 그는 개성 출신답게 향우들과 여러 국면에서 유착관계를 맺었다. 그는 1921년 7월 1일 개성 청년회관에서 개성총교예배당엿청년회가 주최한 동경유학생강연회에서 ‘예술미와 자연미’란 주제로 강연하였으며<sup>5)</sup>, 7월 4일에는 개성엿청년회 주최로 호수돈여학교에서 개최된 음악대회를 참관하였고<sup>6)</sup>, 송경학우회가 주최한 1926년 7월 29일 연 학술강연회에도 참석하여 ‘예술 잡감’을 강연하였다.<sup>7)</sup> 그는 1923년 4월 1일 개성에서 진장섭 등과 녹파회를 조직하였다. 이회는 문예 동아리로, 창립을 기념하여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회원의 문예도서를 고려청년회관에서 공개하고, 5월 1일에 회람지 『풍범』을 간행기로 하였다.<sup>8)</sup> 또 고한승은 지대섭과 1924년 2월 『신문예』를 창간하였다.<sup>9)</sup> 그는 1925년 9월 8일 연극과 무대예술을 연구할 목적으로 창립한

3) 『동아일보』, 1923. 7. 2.

4) 일청생, 「형설회의 극을 보고」, 『매일신보』, 1923. 7. 26

5) 이날의 연사는 고한승 외에 메이지대학 법과의 공진태, 청산학원 진장섭 등이었다. (『동아일보』, 1921. 7. 11)

6) 고한승, 「동서음악대회를 보고」, 『동아일보』, 1920. 7. 12.

7) 이날의 연사는 고한승 외에 김선형, 김재은, 주리회, 공진태, 이완근 등이었다. (『동아일보』, 1926. 7. 28)

8) 녹파회원은 김영보, 이기세, 최선익, 고한승, 진장섭, 조숙경, 마해송 등이다. (『개벽』 제35호, 1923. 5. 1., p.77) 그러나 1924년 3월 녹파회가 발간한 동인지는 『풍범』이 아니라 『성군』이었다. 이 작품집에는 마해송, 김영보, 진금성, 고한승, 김학형, 공진항, 임영빈, 이기세 등이 작품을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1924. 3. 15)

9) 『동아일보』, 1924. 2. 3.

극문회에 발기회원으로 참가하고<sup>10)</sup>, 1927년 1월 6일에는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으로서 있던 소설가 이익상이 주도하여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 출범한 조선문예가협회에 참가하였다.<sup>11)</sup> 당시 고한승은 사회부 기자로 재직하던 중이었으므로<sup>12)</sup>, 보성고보와 니혼대학의 선배였던 이익상의 권유로 이 모임에 들었을 것이다. 이어서 그는 1927년 7월 창립한 라디오드라마연구회<sup>13)</sup>와 찬영회<sup>14)</sup>에 가담하였다.

고한승의 생애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친구들의 수상한 증언이 거두고 있다. 1924년 5월 고한승이 마해송과 개성소년회를 창립했다는 주장이 있으나<sup>15)</sup>,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다다이스트는 “소년운동자가 소년과의 접촉이 없으며”<sup>16)</sup>라고 정당화한 그였다. 고한승의 친구 마해송이 개성에서 창립한 조선소년단은 1921년 12월 10일에 출범하여 이듬해 2월 1일 사무소를 경성으로 옮겼다.<sup>17)</sup> 이 회의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다. 고한승이 창립했다는 개성소년회의 1923년 10월 21일 열린 제1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sup>18)</sup>, 1923년 11월 6일 열린 임시총회의

10) 극문회는 김영보(간사), 심대섭(간사), 고한승, 임남산, 이경손, 이승만, 안석주, 최선익, 최승일 등이 발기하였다.(『매일신보』, 1925. 9. 12)

11) 조선문예가협회의 발기자는 이익상(좌장), 김기진, 최상덕, 박팔양, 김동환, 양건식, 김정진, 최학송, 고한승, 김광배, 염상섭, 이광수, 최남선, 이서구, 유도순, 김억, 양주동, 김영팔, 윤기정, 변영로, 조명희 등이다.(『매일신보』, 1927. 1. 8)

12)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357.

13) 라디오드라마연구회를 창설한 이는 김영팔, 이경손, 심대섭, 고한승, 최승일, 박희수, 유일순 등이다.(『조선일보』, 1927. 7. 3)

14) 찬영회는 심훈, 이구영, 안종화, 나운규, 최승일, 김영팔, 윤효봉, 임원식, 김철, 김기진, 이익상, 고한승, 유지영 등이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한 모임이다.(『조선일보』, 1927. 7. 7)

15) 정인섭, 『색동회어린이운동사』, 학원사, 1975, p.63.

16) 고한용, 『짜짜이슴』, 『개벽』 제51호, 1924. 9. 1, p.7.

17) 『매일신보』, 1922. 2. 3

18) 이날 선출된 임원은 회장 전경성, 총무 임장수, 서무부 김계환·부원 김백려, 학예부

개선 임원 명단<sup>19)</sup>, 1925년 6월 13일 창립 3주년 맞이 임시총회에서 개선된 임원단<sup>20)</sup> 등에서도 고한승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대표로 선출된 민병휘는 세칭 『군기』 사건을 일으켜 경성의 카프 지도부에 항명했던 인물이다. 그와 고한승이 이념상으로 친연성을 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맞다. 1925년 7월 20일 당시 개성부의 개성천도교소년회<sup>21)</sup>, 개성소년회, 중앙회관소년회, 남부엠펀소년회, 개화소년회, 태극소년회<sup>22)</sup> 등은 전개성소년소녀연합원유회를 갖고자 간친회를 연 바 있다.<sup>23)</sup> 이날 참석자 명단에도 고한승은 없다. 개성소년회는 조선소년총연맹의 출범을 앞두고 1926년 8월 16일 개성소년연맹으로 회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뒤<sup>24)</sup>, 26일 각 단체연합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집행부를 구성하였다.<sup>25)</sup> 이 명단에도 고한승은 올라오지 않았다. 이로써 개성의 소년단체들은 1지역 1소년단체라는 조선소년총연맹의 지침에 따라 개성소년동맹으로 단일화되었다.<sup>26)</sup> 개성소년연맹은 오월회 측에 가담하여 친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했다는 점

---

박일찬, 운동부 최광진, 서기 김수천·백정흠, 사찰 공성동 등이다.(『동아일보』, 1923. 10. 31)

19) 이날 당선된 임원은 이사장 진교영, 이사 권진수·박영호·공성집·김용선·김은길·임장수 등이다.(『동아일보』, 1923. 11. 9)

20) 이날 선출된 임원은 대표위원 민병휘, 학예부 박광수·김광균·허성업, 서무부 서규설·윤경수·김용길, 운동부 손태식·박홍숙·조영익 등이다.(『시대일보』, 1925. 6. 16)

21) 개성천도교소년회는 1925년 12월 31일 송도소년회로 개칭하였다.(『시대일보』, 1926. 1. 3)

22) 태극소년회는 1925년 7월 16일 태극단이 개명한 단체이다. 임원은 회장 진태원, 부회장 이홍손, 총무 전용길 등이었다.(『시대일보』, 1925. 7. 18)

23) 『시대일보』, 1925. 7. 22

24) 『동아일보』, 1926. 8. 18

25) 이날 선출된 집행위원은 박광수, 박여중, 김용길, 백준기, 조원순, 이윤근, 김복록 등이다.(『동아일보』, 1926. 8. 29)

26) 소년운동에 관해서는 최명표,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2011 참조.

에서 개성소년회의 임원진에 고한승의 설자리는 없었다. 저간의 사정이 이렇길대, 고한승이 소년회 운동에 가담했다고 증언하는 근거가 궁극하다.<sup>27)</sup>

경성에서 방정환을 도와 왕성하게 활동하던 고한승은 개성으로 돌아가더니 친일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는 1928년 매일신보사에 근무하다가 5월 12일 개벽사의 상무 취체역으로 직장을 옮겼다.<sup>28)</sup> 그가 1928년 9월 개성상사(주)를 설립하고 경영진에 취임<sup>29)</sup>한 사실에 착목하면, 그는 곧 낙향한 듯하다. 그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인삼업에서 축적한 부를 종갓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그 사실은 경성까지 알려져 『삼천리』는 “김원배, 최선익, 고한승 등 제씨가 모다 당시 큰 부자들 중 일인이었다”<sup>30)</sup>고 밝히면서, 근래에는 인삼값이 떨어져 부갓수가 줄어들었다고 전하였다. 인삼업 종에서 이제 능력을 발휘한 그는 1933년 9월 20일 개성인삼동업조합 창립 총회에서 평의원으로 선출되었고<sup>31)</sup>, 1936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릴

27) 고한승은 소년회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지원하는 임무에 충실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는 1925년 방정환과 함께 오월회의 첫 사업으로 선정된 소년지도자 강습회의 소년문제 강사로 위촉되었다.(『동아일보』, 1925. 6. 11) 그러나 오월회나 천도교소년회가 주도한 각종 어린이날 행사에 그의 이름이 누락된 것을 보면, 활발하게 활동한 축에 들지 않는다. 단지 1927년 4월 8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소년단체 대표들이 모여 조선소년운동협회 명의를 행사를 주최하기로 결정한 뒤 4월 10일 열린 준비위원회에서 선전부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동아일보』, 1927. 4. 13) 하지만 이조차 그가 『매일신보』에 근무하고 있는 줄 안 주취측에서 행사의 홍보를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28) 1928년 5월 14일자 『매일신보』는 고한승이 5월 12일 개벽사로 옮긴 사실을 사령으로 소개하고 있다.

29) 1929년판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28. 9. 1 간행)에 따르면, 개성상사(주)의 대표는 최선익, 이사 고한승, 이영우, 박영균, 심의숙, 유기풍, 감사 전시중, 진혜원이었다. 사업장은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북본정 119번지에 위치하였다. 1931년판 요록에는 대표 최선익, 전무이사 고한승, 이사 이영우, 이기형, 유기풍, 감사 전시중, 진혜원, 지배인 김정희로 등재되었다.

30) 『삼천리 벽신문』, 『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 10, p.8.

31) 『매일신보』, 1933. 9. 23.

개성인삼제의 행사를 추진할 간사로 선출되었다.<sup>32)</sup> 그는 1941년 4월 11일 그 조합의 해산을 맡은 청산위원으로 선임되어 해체의 임무를 위임받았다.<sup>33)</sup> 고향에서 벌인 사업이 번성하면서 고향은 1929년 7월 14일 창립한 개성체육회의 임원으로 선출되고<sup>34)</sup>, 1939년 5월 5일 개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0회 시민대운동회에서 심판부 임원으로 선임되었다.<sup>35)</sup> 또 그는 청년운동에도 관여하여 1929년 8월 31일 개성고려청년회 이사회에서 조직부 이사로 선임되고<sup>36)</sup>, 1932년 11월 24일 열린 총회에서 학예부 이사로 선임되었으며<sup>37)</sup>, 1933년 8월 11일 고려청년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이사에 선임되었다.<sup>38)</sup> 그리고 고향은 1933년 2월 26일 개성에서 고려시보사를 발기하고 서무 책임을 맡았다.<sup>39)</sup>

1932년 고향은 개성부내의 생활개선과 풍속개량을 목적으로 관변단

32) 『매일신보』, 1936. 8. 24.

33) 『매일신보』, 1941. 4. 13.

34) 이날 선출된 임원은 김소호, 윤영선, 최선익, 고향은, 허양현, 정익성, 이상현, 권중순, 박연진, 하채성, 윤광선 등이다.(『동아일보』, 1929. 7. 17)

35) 『매일신보』, 1939. 4. 21.

36)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공성구, 서무부 이사 김학형·이병렬, 경리부 이사 하순주·공성구, 조직부 이사 고향은·마태영, 운동부 이사 최상우 등을 선정하였다.(『동아일보』, 1929. 9. 4)

37) 이날 열린 총회에서 개선된 임원은 이사장 황중현, 서무부 이사 임병식·김영휴, 경리부 이사 이상순·김재은, 학예부 이사 고향은·마태영, 운동부 이사 구창모·김학형, 의사부 이사 공진태·김희순·김철호·신공량·김영택 등이다.(『동아일보』, 1932. 11. 27)

38) 이날 선출된 이사는 고향은, 임창식, 구창모, 김학형, 마태영 등이다.(『조선중앙일보』, 1933. 8. 16)

39) 이날 발기회에서는 편집 책임 이선근·마태영, 영업 책임 공진항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4월 15일 창간 예정이었던 『고려시보』의 주요 필진은 개성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그 면면은 공진항, 이선근, 김재은, 고향은, 김영희, 박재청, 박일봉, 김병하, 김학형, 마태영 등이다.(『동아일보』, 1933. 2. 28) 1935년 7월 간행된 『고려시보』 24호에 고향은은 고마부란 필명으로 「위대한 칠월형이어」를 발표했다.(『조선중앙일보』, 1935. 7. 26)



체 교풍회<sup>40)</sup>를 발기하고 부회장에 취임하였다.<sup>41)</sup> 이회는 ‘생활개선’과 ‘풍속개량’, ‘미신 타파’ 등을 취지로 내세워 의복의 염색과 신당 파괴 등에 앞장섰다. 그는 교풍회를 앞장서 창립하며 본격적으로 부일행위에 나섰다. 그것은 그가 경성부청에 근무하고,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기자로 재직할 사실과 맞물려 친일 행각에 나선 증거이다. 고한승은 1931년 개성 부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sup>42)</sup>, 1934년도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록』

40) 교풍회가 일제의 공작에 의한 관변단체인 사실은 당시의 신문 보도를 검색하면 금세 밝혀진다. 1917년 12월 대구교풍회가 설립되자 대구경찰서장이 축사를 발표하고(『반도시론』 제1권 제9호, 1917. 12. 10), 경남 함양군수는 1922년 8월 현재 4호까지 발간된 교풍회 회지를 지원하였다.(『동아일보』, 1922. 8. 9) 송병준이 회장을 맡은 경성교풍회가 말썽을 일으키자 ‘교풍회인가 부랑협잡회인가’(『동아일보』, 1922. 7. 31)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식민지 민중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으며, 전주에서는 항일 청년단체 비판회와 충돌(『동아일보』, 1926. 11. 30)하는 등, 식민 권력을 등에 업고 행세하였다. 이런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자 『개벽』은 교풍회의 친일적 성격에 대하여 “소위 각파 유지의 연맹이란 형식 맞혀서, 반독립, 반혁명(이것은 몇해 전의 그들의 표방에서는 보지 못하던 확실한 신발명)을 양언하고, 관민일치, 대동단결, 노자협조의 3개조를 표방하여, 크게 건마의 충을 진(盡)할 사(事)를 서약하였다”(『최후의 비명이나 신안의 구걸이나 소위 각파유지의 종약에 대하여』, 『개벽』 제46호, 1924. 4. 1, p.105)고 비난하였다. 교풍회는 일본인 여자로만 조직되거나(『동아일보』, 1922. 9. 1), 1938년 3월 25일 남산 적십자 조선본부에서 출범한 경성부내 여급교풍회처럼 직업별로 조직되기도 했다.(『동아일보』, 1938. 3. 26) 그 이름은 전북 원평의 양풍회(『동아일보』, 1923. 8. 23), 황해 연백의 흥풍회(『동아일보』, 1924. 9. 28), 함남 정평군 선덕면의 민풍진흥회(『동아일보』, 1925. 2. 26), 전남 목포의 민풍개선회(『동아일보』, 1922. 11. 14)처럼 유사 명칭을 달기도 하였다. 또 강점시부터 식민지민의 ‘교화’를 우선시한 일제의 방침은 교풍회 조직을 교화단체로 활용한다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성일보』, 1932. 12. 24) 1937년 오사카의 금북교풍회에서는 애국기 3대를 헌납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정남룡, 최성호, 마찬규 등이 발기하였다.(『매일신보』, 1937. 12. 12)

41) 『중앙일보』, 1932. 11. 9.

42) 고한승이 입후보자 『매일신문』은 “당년 30세의 전도양양한 청년 금반 부의 입후보 자로는 제일 연소한 인물이다. 군은 일찍이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동경에 건너가 일본 대학 문과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일시 경성일보사에 재직하고 기자생활을 하다가 3년 전 방향을 꺾어 고향 개성에 상사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자신 스스로 전무취재역의 의자에 앉겨 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송경학우회, 고려청년

에 의하면 개성부 축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의 권력욕은 계속되어 1937년 의원에 다시 당선되어 『삼천리』에 당선사례를 내기도 했다.<sup>43)</sup> 이후 그는 해방 전까지 개성부 의원과 중추원참의로 재직하였다.<sup>44)</sup> 고한승은 1932년 11월 11일부터 3일간 실시된 개성부내 자력갱생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섰고<sup>45)</sup>, 자발적 의사에 따라 1940년경에 다카야마 키요시(高山清)로 창씨개명하였다.

고한승의 친일 행각은 1941년 12월 22일 개성부청에서 열린 개성애국기 헌납회의 실행위원으로 진장섭과 함께 선임되면서 절정에 달하였다.<sup>46)</sup> 그 덕분에 그는 1943년 추천제로 전환한 부의원 선거에서 재신임받아 의원직을 연임할 수 있었다.<sup>47)</sup> 그는 태평양전쟁이 계속될 줄 알았던지, 1945년 1월 송도항공기주식회사<sup>48)</sup>를 설립하고 취재역 사장에 취임하였다.<sup>49)</sup> 그러

---

회 등에 간사 이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으나 공직자로서의 출마는 금반이 처음이다. 군은 호협패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인의 불행을 견할 시는 신(身)과 금(金)을 불석(不惜)하는 사람이다. 그는 특히 웅변가로서 언론은 명확한 점으로 개성 사회의 일인자이다. 군은 과거에 있어서 개성부 사정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바 만었스니 그의 평소의 포부는 금반 자치제를 상후(相候)하여 발휘케 되리라고 일반은 기대한다.”고 소개하였다.(『매일신보』, 1931. 5. 18)

43) “본인이 금반 개성부회 의원에 당선되었사옵기 유권자 제위께 근(謹)히 지상으로 사의를 표하나이다. 개성부 고한승”(『삼천리』 제7권 제6호, 1935. 7. 1, p.244)

44) 고한승은 개성부 의원 자격으로 서북지방을 시찰하고 기행문 『압강을 향하여 (1-3)』(『매일신보』, 1931. 7. 10-16)를 발표하였다.

45) 『매일신보』, 1932. 11. 13.

46) 『매일신보』, 1941. 12. 24.

47) 『매일신보』, 1943. 4. 26.

48) 조선총독부 발행 『관보』 제5412호(1945. 2. 15, p.7)에 의하면, 송도항공기주식회사의 본점은 개성부 사직정 142번지이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항공기와 부품 제조 판매, 농업 및 토목기구 부품 제조 판매 등이다. 자본금은 일백만원, 1주당 50원이다. 대표 취재역은 高山清, 주소지는 개성부 만월정 294번지이다. 등기일은 소화 20년(1945년) 1월 19일이다.

49) 송도항공의 임원은 사장 高山清, 전무 木山承基, 상무 취재역(총무부장) 大山隆司, 상무(업무부장) 高山茂松, 상무(경리부장) 伊東博, 취재역(공장부장) 天山武鑑, 취재

나 시설 공사 중에 해방되어 그는 반민족행위자로 신세가 바뀌었다. 1949년 2월 개성에서 반민특위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고한승은 6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공민권 5년 정지형을 선고받았다.<sup>50)</sup> 그는 비행기회사를 설립한 목적을 묻는 재판장에게 “부일적 이익보다도 순전한 상인 심리에 의한 것”<sup>51)</sup>이라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이 회사는 설립 인가 전부터 일제에 비행기를 납품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sup>52)</sup> 또 이 회사는 “긴박한 결전에 대응코저”<sup>53)</sup> 설립 허가가 난 것이어서, 일제가 미군의 본토 공습에 대비하여 식민지를 군수기지로 활용한 증거이다. 따라서 고한승의 발언은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에서 우리나라에 불과하다.

이런 부왜 전력은 해방공간에서 고한승의 행동을 제한하는 굴레로 작용하기 마련이었다. 그가 『어린이』의 복간에 힘썼던 것은 고우 방정환에 대한 우정의 발로일 터이나, 속으로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속셈도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1948년 11월 27일 덕수궁에서 3녀를 김우진의 아들에게 시집보낸 것<sup>54)</sup> 외에, 눈에 띄만한 행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그는 부일 전력 때문에 문단 활동을 그만 두었다. 그가 은거해버리는 통에 사망연도조차 1950년설<sup>55)</sup>, 1951년설<sup>56)</sup>, 1953년설<sup>57)</sup> 등이 대립되어 왔다. 이 중에서 1951년설과 1953년설은 동향의 막역한 친구들이 한국전쟁 중에

---

역 松平南鎮·木戶荷裕, 감사 西原清一·款川鎮 등이다. (『매일신보』, 1945. 1. 17)

50) 『동아일보』, 1949. 6. 19.

51) 『자유신문』, 1949. 6. 19.

52) 『매일신보』, 1944. 12. 14.

53) 『매일신보』, 1945. 1. 14.

54) 『자유신문』, 1948. 11. 27.

55)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p.12.

56) 진장섭은 “1·4후퇴로 부산 피난중 추동간(월일 불상)에 열병으로 사망”(정인섭, 앞의 책, p.428)이라고 회고하였다.

57) 마해송은 “작년에 부산에 난중에 즐서한 고한승”(마해송, 『나와 색동회 시대』, 『신천지』 제9권 2호, 1954. 2, p.158)이라고 회고하였다.

죽었다고 특정하면서도 연도가 달라 의아하다. 최근에는 그가 1974년까지 생존했다는 주장이 제출되었다.<sup>58)</sup> 사정이 이러한 탓에, 근래 그의 아동문학 작품들을 갈무리한 선집의 편자도 생애를 복원하지 못하였다.<sup>59)</sup> 그만큼 지금까지 그의 전기적 생조차 규명되지 않았고, 개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일 터이나, 부왜 전력과 친구들의 의심적인 증언 외에 그가 특정 부문에서 오래 활동하기보다는 여러 부문을 넘나들며 활동한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변명처럼 ‘부일적 이익보다도 순전한 상인 심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주체적 선택이었다. 결국 고한승에게 문학은 짧은 날의 소일거리였던 셈이다.

58) 고한승이 1974년 다카하시에게 보낸 편지가 『도스토예프스키와 박열-고한용 군에게서 온 편지』(『高橋新吉전집』 4)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 글에 인용된 2월 19일의 편지에서 고한용은 “나와 한길(韓吉) 군은 다 일흔 한 살의 나이로 가끔 만나서 회고담을 하는 정도이며 그밖에 살아남은 옛날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3월 11일의 편지에서는 “내가 미야자키니치니치(宮崎日日)신문사에 근무했던 무렵 병이 나서 미야자키현립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쓰보네 군이 느닷없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라고 추억하였다.(나기, 『한국의 다다』, 『다층』, 2001. 여름호, p.242) 이에 따르면, 고한승은 해방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문사에 취직하고 있다가 신병으로 입원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그를 다카야마(高山)로 기억하는 문우들이 많다는 증언을 감안하면, 그는 일본에 거주하는 중에 일본이름으로 행세했을 것이다. 그가 언급한 쓰보네는 일본의 아나키스트였던 아키야마 키요시(秋山清)가 젊어서 쓰던 필명 쓰보네 키요시(局清)이다. 고한승은 일본식 이름(高山清)을 아키야마에서 따왔을 정도로 친밀감을 표했다. 그는 아키야마에게 자신의 일본명(高山慶太郎)을 양도하여 아키야마가 한때 필명으로 삼기도 했다.(사나다 히로코, 『고한승과 일본 시인들-교유관계를 통해서 본 한국의 다다』, 『한국시학연구』 제29호, 2010. 12, p.67) 이것이 밝혀지면, 고한승의 사망연도와 일본에서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한승과 동일한 개성 출신으로 보성고보까지 함께 다니고 일본 유학, 색동회 등에서 같이 활동한 진장섭과 마해송이 저간의 사정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고한승의 사망 시기를 한국전쟁 통이라고 증언한 배경이 수상하다.

59) 정혜원 편, 『고한승선집』, 현대문학, 2010.

## 2. 다다이즘의 소개

고한승이 한국문학사에서 거론되어야 할 이유는 다다이즘의 소개자란 사실에 있다. 그는 “조선 최초의 싸싸이스트 고짜짜”<sup>60)</sup>로 칭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다다리스트를 자처하는 동안에 고짜짜, 고한용, 무위산봉(無爲山峰) 등의 필명을 사용했다. 그것 말고도 그는 본명 외에 고마부, 고사리 등의 필명과 다카야마 게이타로(高山慶太郎)이라는 일본이름도 갖고 있었다. 그가 다다이즘에 빠지게 된 기간은 1924년부터 1926년으로, 일본 유학 중에 다다리스트들의 시를 읽고 받은 영향 때문이었다. 특히 그는 다카하시 신키치(高橋新吉<sup>61)</sup>, 1901~1987), 쓰지 준(仕潤, 1884~1944), 아키야마 키요시(秋山清, 1904~1988) 등의 작품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 다카하시는 1920년 『요로즈초호(萬歲報)』에서 다다를 소개한 기사를 읽고 다다리스트라고 선언한 시인이다. 일본 최초의 다다시인이었던 그는 택시 기사를 지팡이로 때리고 나서 유명인사가 되었으나, 세간에서는 그를 미쳤다고 ‘발광시인’이라 불렀다.

고한승은 일면식도 없었던 다카하시에게 편지를 내고 방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미 다다와 결별을 걱정했던 다카하시는 1924년 9월 방한하여 경성 체부동의 고한승의 집에서 2주간 유숙하였다.<sup>62)</sup> 그가 경성에 도착하자

60) 고한용, 『DADA』, 『동아일보』, 1924. 11. 17.

61) 다카하시는 개성 형설사에서 창간한 『사조』(편집 겸 발행인 김영기) 1927년 12월호에 시 『ふうふ』와 수필 『死ぬる事が』를 발표하였다.(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5, pp.459-460) 이 잡지의 편집 경향이 프롤레타리아문학에 가까운 탓인지, 고한승은 필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62) 다카하시는 9월 방한 당시에 고한승이 개성에서 경성으로 이사하였고, 경성부청에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사나다 히로코, 앞의 글, p.73) 그러나 고한승이 1924년 3월 부인 김경복에게 건 이혼소송 서류의 주소는 태어난 개성군 송도면 지정 246번지였고, 부인은 경성 광화문동 135번지였다. 그렇다면 고한승은 주소지를 개성의 본가에 둔 채, 경성부에 다니느라 경성에 살았을 것이다.

고한승은 고무된 나머지 그의 기행마저 고평하고, 출국할 때에는 “사랑하고 존경해야 마지 안이하는 군이 땀 생각업시 바로 잘 가 잇기나 한지, 용산역두의 차창 안에 그의 장발의 면영이 아직 그대로 잇다”<sup>63)</sup>고 이별을 안타까워하였다.<sup>64)</sup> 고한승은 다카하시의 경성 방문에 압도된 느낌이 가지지 않았던지 “잠간 동안 단여간 사이에 재미잇든 여러 가지 이야기는 결국 싸々만의 재미이고, 제삼자의게는 밋친놈 격이니까 더 말할 흥취도 나서지 안이 하는 터이지만 그러한 新吉이도 싹싹하기 싹이 업고 어엿부기 한이 업는 쎄”<sup>65)</sup>를 재술하며 경성 체류 일정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그는 이 기회를 틈타 ‘결국 싸々만의 재미’로 치환시켜, 다카하시가 자신을 유일한 다다이스트로 승인해준 양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는 감격에 겨운 나머지 일본 다다이즘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쓰지 준에게도 방한을 요청하였다. 고한승은 그를 ‘나의 은인’이라고 존칭했으며, 그가 온다고 기별하자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하였다. 쓰지는 1924년 12월 얼굴도 모르는 고한승의 초청으로 입경하였다. 그가 편지만 주고받은 낯선 일본 시인들을 자비로 초청하여 경성의 문우들에게 소개한 것은 공명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고한승은 한국 문단에서 다다이즘의 선구자인 양 행세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개하느라 열심이었다.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황폐한 서구 지성계에서 발아한 예술계의 반동적 경향이다. 그것은 1924년 경에 초현실주의로 수렴되어버렸다. 이 시기에 고한승은 다다이즘을 한국 문단에 소개한 것이니, 시기상으로 늦은 편이 아니었다. 고한승은 『싸싸이슴』(『개벽』 제51호, 1924. 9. 1)에서 다다이즘이 1916년 스위스 쥐리히에 모인 일단의 예술가들에 의해 시작된

63) 고한승, 『서울 왓든 싸싸이스트의 이야기』, 『개벽』 제52호, 1924. 10. 1, p.153.

64) 다카하시는 1937년 만주의 석불을 구경하러 가던 차에 방한하여 일본에서 친분이 있었던 오장환의 안내로 호강하였다.(이봉구, 『명동백작』, 일빛, 2004, pp.22-23)

65) 고싸싸, 『DADA』, 『동아일보』, 1924. 11. 17

줄 알리고 난 뒤에, 짜라의 선언문과 대표적인 인물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그 뒤에 다다이스트 뒤상의 그림과 아라공의 시 『자살』 등을 대표작으로 소개하고, 다다이스트들은 ‘진리를 위하여서도 미를 위하여서도 인류를 위하여서도 선을 위하여서도 동하지 안이한다’고 그들의 부정정신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들은 주관의 극단까지 밀고나가서 ‘초인적인 고적하고 적나라한 말의 해방으로 인하여 존재의 곰상스런 껍질을 폭발시키고 뛰어나오는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다다이즘이 “시에서 저널리즘으로 말미암아 오용되고 부패되어버린 언어를 쇠신해서 가장 심오한 언어연금술로 되돌아가서 현실에 대한 언어의 우월성을 재확립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의도”<sup>66)</sup>하여 소위 음향시 등을 선보인 사실을 연상해 보면, 고한승의 이해도가 상당했던 줄 알 수 있다.

다다의 주장은 무엇인가? 다다는 이퀄 파괴이다. 잇다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극단적 파괴이다. 인습과 전통과 모든 것에 대하여 철권을 놓히 하여 쭈다려 부시지는 기선의 언어와 문장과 표현과 그러고 사상까지라도 두다려 부시지는 뻔달리슴이다. 그들의 눈에는 파괴가 잇을 뿐이요 그밖게는 아모 것도 업다.<sup>67)</sup>

짜짜는 무엇이나? 아무 것도 아니고 짜짜이다. 어데까지 현실을 긍정하야 가지고 생이란 것을 유쾌히 향락하자는 것이다. 그러타고 데카당티스트도 아니고 표현과 입체파도 아니며 심볼리슴도 아니고 발광주의자도 아니다. 아닌 것 빼놋코는 다 아니다.<sup>68)</sup>

인용문에서 고한승은 ‘데카당티스트도 아니고 표현과 입체파도 아니며

66) 박인기, 『한국 현대시의 모더니즘 연구』, 단국대출판부, 1988, p.144.

67) 무위산봉 고사리, 『다다? 다다!』, 『동아일보』, 1924. 11. 24.

68) 고짜짜, 『우옴피쿠리아』, 『동아일보』, 1924. 12. 22.

심볼리즘도 아니고 발광주의자도' 아닌 다다이즘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문단에서 다다이즘이 무위로 돌아간 원인을 두고 “본래 그 뜻이 크게 왜곡되어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퇴폐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소개되어 그 소개를 담당한 주체부터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정신 상태였다”<sup>69)</sup>고 단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에서 보듯이, 고한승은 다다이즘을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퇴폐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곡해하지 않고 정곡을 찌르고 있다. 그는 ‘기선의 언어와 문장과 표현과 그리고 사상까지라도 두다려 부시자’는 다다이스트들의 전위적 주장과 ‘현실을 긍정해야 가지고 생이란 것을 유쾌히 향락하자’는 태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다다이즘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31년 이상에 의해 『이상한 가역반응』으로 구현되었다. 한국문학사적으로 볼 때, 고한승이 다다이즘에 좀더 주목하여 작품으로 구체화했다면 1930년대의 시단은 이상과 같은 전위시인을 만나서 훨씬 다양해졌을 터이다. 또한 현대시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거둔 게 없었던 바는 아니다. 다만 즉시 나타난 효과가 없었을 따름이다.

짜라가 다다를 가리켜 “이것은 저널리스트들을 생각지도 못한 세계의 문 앞으로 끌고 왔지만 우리들에겐 별로 의미가 없다”<sup>70)</sup>고 선언한 뒤에 “다다는 모든 것에 적용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sup>71)</sup>고 말한 바와 같이, 다다이즘은 일체의 부정을 통해서 시대정신의 전복을 꾀한 문예운동이었다. 그것은 시대에 대한 회의를 전제하여야 성립하는 것이어서 시대를 장악하여 사람들을 구속하는 모든 주의주장이나 이즘을 배격하였다. 그런 탓에 다다이즘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차후의 예술적 반동을

69) 정삼균, 『다다혁명운동과 이상의 오감도』, 민지사, 2011, p.404.

70) Tristan Tzara, 『1918년 다다 선언』, Tristan Tzara · André Breton, 송재영 역, 『다다/쉬르 레알리즘 선언』, 문학과지성사, 1994, p.13.

71) Tristan Tzara, 『다다에 관한 강연』, Tristan Tzara · André Breton, 위의 책, p.107.



재촉하고 자극하여 문제적이었다. 다시 말하여 “쉬르레알리즘에 흡수되어 정연한 사상적 체계로 통일되었다는 점에 다다이즘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sup>72)</sup>는 점에서, 다다이즘은 예술계의 변혁을 견인한 사상운동이었다. 즉, 다다이즘을 선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시대를 앞선 전위적 사상을 지녔거나, 기존의 예술을 일거에 전복하고 새로운 예술을 창도할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고한승이 이에 부응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는 『짜짜이즘』에서 식민지의 조건을 개조하는 사업의 삼단계로 ‘첫째는 선전사업이 오 둘째는 파괴사업이오 셋째는 건설사업’을 들고 나서 ‘조선은 아즉도 문화의 선전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곧, 파괴와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다이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다다이즘을 실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의 생을 살펴보아도 그는 일평생 부르주아계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기존 질서에 대항하여 새로운 판도를 형성하기에는 지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힘이 모자랐다. 말하자면, 그의 역량으로 보아도 선전사업에나 어울릴 뿐, 파괴나 건설에 소용되는 혁명적 정열을 지닌 인물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새것에 대한 관심과 문명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다다이즘을 소개하느라 열심이었을 뿐이다.

형식이 그러한 동시에 내용이 또한 반전통적이나 정신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전혀 경신된 세계를 창조해야 가지고 있다. DADA의 인생관은 그것을 아라먹기에는 그리 어려운 것이 없다. 무슨 철학 김흔 이론이 있거나 뒤숭숭한 무슨 체계가 있는 것도 안이니까 근대적 의식 안에 얼마간 부닥겨 난 사람이면 곳 이해할 것이다. 일부의 학자 박사들은 타락한 세기말주의로 써들린다지만 고민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오든 나에게는 엇지나 고마운 주의인지 모르겠다.<sup>73)</sup>

72) 송재영, 『다다이즘과 쉬르레알리즘 개관』, Tristan Tzara · André Breton, 위의 책, p.241.

인용문은 고한승이 다다이즘을 수입하느라 공들였던 동기를 알려준다. 위 글의 말미에서 고한승은 ‘고민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오든 나에게는 잊지나 고마운 주의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가 다다이즘을 공부한 이유와 짧은 기간에 그만둔 사연을 시사한다. 그것은 ‘고민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오든 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권유한다. 고한승의 ‘절망’은 성향으로 볼 때, 당시 식자층에 만연했던 기미독립만세운동의 후유증이라거나 지식인의 허무의식이 낳은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는 한번도 다다이스트들처럼 상식을 파괴하고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몸짓을 취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에 근무하였고, 일제의 공복을 받는 관료로 재직하였으며, 부회 의원과 중추원 참의를 지낸 것도 모자라 비행기까지 헌납할 만큼 권력지향적 속성을 지닌 인물이다. 평생 동안 그는 개성의 토호로서 내면화된 부르주아 의식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고민’은 개인사적 요인과 관련짓는 편이 훨씬 타당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헤아릴만한 사건이 낙양의 지가를 올린 고한승의 이혼 소송이다. 1924년 그는 부인 김거복을 걸어 이혼장을 제출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대정 2년에 피고와 결혼한 후 두 사람은 경성과 일본으로 다니며 상당히 수양을 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별로히 깊지 못한 중 피고는 항상 원고를 보고 하는 말이 리해업는 결혼으로써 부부가 되어 사랑 업는 생활을 하는 것은 인형의 살림이나 다름이 업고 짜라서 두 사람을 위하여 모다 불행이라고 리혼을 주장하든 바 작년 룩월에는 돌연히 원고의 집을 쫓나 자긔 친가로 간 후에 다시 도라오지 아니 함으로 필경은 리혼 소송을 제기한 것”<sup>74)</sup>이라 한다. 그 다음해 4월 16일 고한승은 경성제

73) 고한용, 『짜짜이슴』, 『개벽』 제51호, 1924. 9. 1, p.3.

74) 『동아일보』, 1924. 3. 27.

일고등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숙자와 개성에서 결혼식을 올렸다.<sup>75)</sup>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소년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였던 정홍교의 사례와 유사하다.<sup>76)</sup> 고한승 역시 일본 유학과 작가이자 모던 보이로서, 마치 “결혼은 묘장(墓場)의 준비”(『짜짜이슴』)라던 자신의 말을 실천하려는 듯이 불미스러운 추문 생산 대열에 합류했던 것이다. 1935년 개성 송도금융조합 제16회 총회에서 평의원에 선출<sup>77)</sup>될 정도로, 개성에서 소문난 부잣집의 유복한 자제였던 그가 동부인하여 일본에 건너와서 “불인지반(不忍池畔)에 교々한 월색에는 고국의 연인이 그리워지고 전(轉)々히 굴너가는 유랑의 세월에는 세상이 슬퍼지고 말었다”(『우움피쿠리아』)고 한눈팔며 하소연한 것만 보더라도, 가장으로서의 무책임한 줄 알 수 있다. 그는 이국까지 따라와 남편의 뒷바라지에 고생하는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바다 건너에 두고 온 연인에 경도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다다이즘에 기울어지게 된 동기는 부부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유학 시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고한승은 일본 니혼대학 예술과를 다녔다고 한다. 개성에서 태어나 같이 상경하여 보성고보에 다니던 진장섭과 마해송이 기미독립만세운동에 나섰다가 퇴학당한 것과 달리, 고한승은 1920년 졸업하였다.<sup>78)</sup> 그가 다녔다는 예술과는 1921년 개강했으므로, 바로 본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과에 다녔을 것이다. 그가 재학했을 1923년 9월에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대학 건물

75) 『동아일보』, 1925. 4. 19.

76) 1934년 3월 7일 유치원 교사 박금례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성이 발칵 뒤집혔다. 그녀는 전북 군산 출신의 부잣집 규수로, 이화여고보와 경성보육학교를 졸업한 뒤에 경성의 갑자유치원에서 보모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조선일보』 기자였던 유부남 정홍교를 만나 청춘을 유린당한 끝에 비극적 생을 마치고 말았다.(『동아일보』, 1934. 3. 6; 3. 8-9)

77) 『조선중앙일보』, 1935. 5. 1.

78) 『보성백년사』, 보성고등학교, 2006, p.604.

이 불타버렸다. 그해 여름방학 중에 그는 귀국한 상태였을 터이므로, 천재 지변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와중에서 이혼소송까지 벌인 셈이다. 그의 부인이 ‘항상 원고를 보고 하는 말이 리해 엮는 결혼으로써 부부가 되어 사랑 엮는 생활을 하는 것은 인형의 살림이나 다름이 없고 짜라서 두 사람을 위하여 모다 불행이라고 리혼을 주장’했다는 부분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 ‘리해 엮는 결혼’을 한 부부는 고한승만이 아니었으므로, 이 대목은 ‘사랑 엮는 생활’에 초점을 맞추기도 난망하다. 그렇다면 외국까지 나와서도 ‘고국의 연인’을 사모하는 지아버를 보며 인고하던 지어미가 ‘인형의 살림’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이혼을 요구한 편이 그럴 듯해 보인다. 고한승이 이혼하자마자 여고생과 혼인을 한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김거복은 결혼생활 중에도 계속되는 그의 바람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부인까지 대동하여 유학한 그가 체일하는 동안에 “썰팅의 집 지여보기와 해군 공창에서 쇠쟁이 줍기예다가 서생 쏘이를 가하고 통신성 수전인(手傳人)에 맥주회사 직공 견습, 그 우에 우유 신문 배달의 비벼를 하며 기사대를 들고 약광고 돌으다가 영국 황태자 전하의 여자동차가 통과하시든 날 짝금나리에게 경을 담복 치든 일”<sup>79)</sup>도 있었다고, 체일 중에 고생을 사서 한 듯이 고백한 추억담은 믿기 힘들다.

고한승이 다다이즘과 결별한 사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동안 움죄던 이혼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애인과 혼례까지 마친 그는 경성부청에 다니며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진단해 보건대, 다다이스트가 되기에는 능력 부족이 컸던 그였다. 작가의 능력이란 시대정신에 대한 엄정한 탐구와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 그리고 문학적 실험정신에서 발생한다. 그 점에서 고한승은 작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편이었다. 그는 다다이즘은커녕, 그 전사에 해당하는 입체파의

79) 고짜짜, 『우옴피쿠리아』, 『동아일보』, 1924. 12. 22.

영향에 따른 시편도 발표하지 않았다. 또 후사에 해당하는 쉬르 레알리즘의 작품도 시도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는 ‘아라뎅기에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고 자신하며 다다이즘을 소개할 줄 알았지, 스스로 ‘근대적 의식 안에 얼마간 부덕겨 난 사람’이 아닌 줄 몰랐던 셈이다. 그렇다면 그가 다다이즘을 문단에 선양하느라 부산했다가 느닷없이 그만 둔 이유도 개인적인 형편이 우선이다.

고한승이 다다이즘을 멀리하게 된 배후는 문단 상황과도 결부되어 있다. 그가 다다이즘을 소개하는 사이에 공격하는 평자들이 생겼다. 특히 김기진은 다다이즘을 “죽히 이론이 못 되는 허황한 것”<sup>80)</sup>이라고 폄하하였다. 그는 식민지의 현실을 외면하는 다다를 가리켜 “세기말적 말쑤신경의 난사선(亂射線)의 범벅”이라고 비난하면서, 결코 “시로운 시대의식에 눈썸 본질은 그 평범한 가운데에 광휘를 일허버리지 않는 것”<sup>81)</sup>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한승은 『잘못 안 짜々-김기진 군에게』(『동아일보』, 1924. 12. 1)에서 반박을 시도했으나, 상대에 대한 인신 공격적 발언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나중에는 “김명순 양의게 공개장<sup>82)</sup> 쓰던 붓대를 짜짜의게로 돌려 보려는 것”<sup>83)</sup>이라고 물고 늘어지며 논의선상에서 벗어나버렸다. 말하자면 고한승은 논점에 대응할만한 비평적 능력을 보이지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런 탓에 그는 무리가 아닌 김기진의 독자적인 기습에도 제대로 대꾸할 수 없었다. 또 김니콜라이가 다다풍의 시를 쓰지 않는 그의 안부를 물어도 무언이였다.<sup>84)</sup>

80)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2, p.549.

81) 김기진, 『본질에 관하여』, 『매일신보』, 1924. 11. 23.

82) 김기진, 『김명순씨에 대한 공개장』, 『신여성』, 1924. 11: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 IV, 문학과지성사, 1989, p.592.

83) 고짜짜, 『잘못 안 짜々-김기진 군에게』, 『동아일보』, 1924. 12. 1.

84) 김니콜라이는 시 『윤전기와 사충집』(『조선문단』, 1927. 2)의 말미에 ‘고짜짜 방짜짜 최짜짜 죽었는지 살었는지 적々무문이다’고 적어 셋의 작품 발표를 촉구하였다.

또 1925년 카프가 출범하면서 문단 세력이 개편된 것도 고한승으로 하여금 다다이즘에 대한 관심을 줄이게 만든 이유이다. 김기진을 비롯한 카프의 논객들이 내부 단속과 외부 싸움으로 선화하면서 다다이즘을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이슈화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고한승과 함께 다다이즘을 들고 나왔던 김화산이 카프 측과 아나키즘논쟁을 벌이며 전선이 이동되자, 다다이즘은 입론 가능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특히 박팔양에 이어 다카하시의 시집을 읽고 “낡은 감상풍의 시를 버리고 따따풍의 시작을 시험”<sup>85)</sup>하며 다다이즘에 기울었던 임화마저 카프의 권력 투쟁에 앞장서면서 식민지의 다다이즘은 운동으로서의 동력을 조기에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다다이즘은 부정적 정신을 행동화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객관적 정세와 마침 조직화된 카프의 기세 앞에서 서둘러 퇴장하고 말았다. 문단에 다다이즘을 착근시키려면 단단한 논리와 함께 시작품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터이다. 더욱이 카프처럼 결속력이 강한 조직체가 출현한 마당에서는 정연한 논리로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고한승은 아마추어적 호기심에서 다다이즘을 받아들였기에, 이론을 육화하여 세 대결에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서는 따라나서는 이가 없으면 그만 두면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한승은 전위적인 다다이즘을 신봉하고 행동할 만큼 반항적이지 못했다. 그는 지주계급의 후손답게 생애 내내 안락한 삶을 영위했을 뿐 아니라, 작품상으로도 그것을 실천한 것이 없다. 그는 다카하시처럼 발광하지도 않았고, 투쟁가가 되어 날선 대립을 마다할 성격도 못 되었다. 그런 이유로 고한승의 다다이즘은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였고, 문단 상황이 변하면서 스스로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서는 문단에 이름을 알린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쉬웠을 것이나, 자신의 역량이나 성향에 비추어 보아도 다다이즘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 후에 식

85) 임화, 「어느 청년의 참회」, 『문장』, 1940. 2, p.23.

민당국의 기관지 『매일신보』 기자로 취직한 그였으므로, 다다이즘은 ‘세기 말주의’의 의미조차 획득하지 못한 채 개인적 ‘고민과 절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다다이즘의 수입에 앞장섰으면서도,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을 양성하여 문단의 분과를 다양하게 만들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비다다이스트의 삶을 영위한 그의 탓이다. 그가 다다이즘에 관한 논쟁이 사월 무렵에 아동문학계로 보폭을 이동한 것을 보더라도, 진지하지 못한 문학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 3. 문재의 방만한 소비

고한승이 문학사에서 외면되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촉망받던 문재를 방만하게 소비한 그로부터 기인한다. 그는 1920년 3월 발행된 『여광』에 『웃음』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소설들을 발표하였다. 같은 잡지에 발표된 그의 소설 『친구의 묘하』와 『야마구치(山口) C군에게』는 염상섭에 의해 “장래에 큰 희망이 있음을 암시함에 충분하다고 생각”<sup>86)</sup>한 작품이다. 당대의 유명 작가에게 인상적인 평을 들을 정도로 그의 문재는 뛰어났다. 실제로 그는 1926년 서원이라는 아호로 『시대일보』 신년문예에 소설 『파선』을 응모하여 등외 입선하였다.<sup>87)</sup> 그 전에 그는 『회고 (1-3)』(『조선일보』, 1921. 11. 19-21)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6인 공동소설 『홍한녹수』<sup>88)</sup>의 6회분 ‘인육의 시(市)로’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상대에 대한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이 작품은 운영이라는 시골 처녀가 한손이라는 청년을 만나 사랑하다가 임신하고, 그마저 떠나버리자 매춘으로 호구한다는 내용이다. 고한승은 이 작품의 끝에

86) 염상섭, 『월평』, 『폐허』 제2권, 1921. 1, p.94.

87) 『시대일보』, 1926. 1. 5

88) 소설 『홍한녹수』(『매일신보』, 1926. 11. 14-12. 19)의 횡수별 필자는 최학송(1회), 최승일(2회), 김명순(3회), 이익상(4회), 이경손(5회), 고한승(6회)이다.

‘운경…이월화<sup>89)</sup>’라고 덧붙임으로써, 그 무렵 실연과 결혼 실패로 방황하던 영화배우 이월화의 비극적 삶을 소설화한 사실을 밝혀 물의를 빚었다. 위 사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의 습벽은 진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자신의 글쓰기로 타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줄 그라고 몰랐을 리 없다. 그는 사회적 약자이자 결혼에 실패한 가련한 여배우에게 동정을 베풀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아픈 과거를 폭로하여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올려놓았다. 다다이즘을 설파하고 다다이스트로 자처하던 그의 뒷모습에는 이처럼 비전위적인 문학 활동이 있었다.

집겹든넷날이 그리웁거든  
 눈물겨운넷날이 안그립으릿가  
 내잘못네잘못못지도마려요  
 흐르던눈물이 모다알지요  
 이제는이것저것 다-이저바리고  
 오죽 눈물겨운넷날이그릅습니다  
 1926. 10. 26

-「그씨」<sup>90)</sup> 전문

비단 시인이 아니어도 지난 시절은 그림다. 현재는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탓에,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꿈꾼다. 그의 도피와 백일몽은 현재적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려주는 증표이다. 이 무렵에 그는 신혼으로 식민당국의 기관지 기자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대졸자도 취업하기 힘들던 경제난을 고려하면, 그의 처지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설사 그리

89) 이월화(李月華, 1904~1933)는 한국 최초의 여자배우로, 본명은 이정숙(李貞淑)이다. 그녀에 대해서는 유민영, 『우리 시대 연극운동사』, 단국대출판부, 1996, pp.83-86 참조.

90) 『매일신보』, 1927. 1. 1.



위하는 대상을 식민지 이전이라고 소급해도, 그는 반식민 투쟁에 나선 적이 없었으므로 그 또한 성립하기 힘들어 ‘그씩’가 언제인지 불명료하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지도 못한 채 불명확하다. 당시에 문단은 카프의 출범으로 술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시인이라면 카프에 가담하거나,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여 카프에 맞서야 할 즈음이었다. 그런 판에 위 시처럼 불분명한 내용을 시화하여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무료하다. 도리어 그와 같은 일은 그를 문단에서 쉬 잊혀지도록 조장했을 터이다.

1923년 5월 1일 동경에서 색동회를 발기한 고한승은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과정에 깊이 개입하였다. 먼저 그는 1923년 7월 25일 천도교당에서 동화를 구연한 것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개최된 동화대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였다.<sup>91)</sup> 그가 동화회에 초청받아 다닐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동화를 비롯한 아동문학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줄 알 수 있다. 그는 1923년 1월 동화 『옥희와 금붕어』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의 첫 동화이다. 이때는 그가 동경에서 방정환 등과 색동회를 만들기 전이었다. 색동회의 최초 회합이 그해 3월 16일 방정환의 하숙방에서 열렸으니, 고한

91) 고한승은 1924년 6월 14일에는 개성의 셋별사가 연 동화 가극대회에서 마해송과 강연하였고(『동아일보』, 1924. 6. 17), 1925년 4월 29일 천도교소년회 주최 특별 동화회에 방정환 등과 출연하였으며(『조선일보』, 1925. 4. 30), 5월에는 경성도서관 아동실에서 열린 현대소년구락부 주최 정기동화대회에 참석하였다.(『동아일보』, 1925. 5. 17) 그는 12월 13일 경성 와룡동 종친청년회관에서 열린 화일셋별소년회 창립 기념 동화동요회에 출연하였고(『조선일보』, 1925. 12. 14), 1926년 10월 16일 『별나라』가 주최한 특별동요음악소년왕대회에서 강연하였으며(『매일신보』, 1926. 10. 14), 10월 27일 천도교소년회 주최로 천도교당에서 열린 동화회에 참석하였다.(『매일신보』, 1926. 10. 27) 또 그는 1927년 3월 26일 『어린이』 창간 4주년 기념 동화 동요 무도 동화극회에 출연하였고(『조선일보』, 1927. 3. 23), 6월 17일 어린이사가 주최하여 천도교기념관에서 연 『어린이』 창간 기념 제1회 경성 독자대회에서 동화를 구연하였으며(『매일신보』, 1927. 6. 16), 경성방송국이 개국되자 8월 7일부터 격일로 방정환, 이정호와 함께 ‘DK의 연속 동화’란을 담당하였다.(『동아일보』, 1927. 8. 9)

승은 그전부터 아동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이것은 그가 신극 운동에 참여하고, 개성의 문우들과 『여광』 등에 일찍부터 작품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으로 봄 적하다. 또 다다이즘을 소개하던 것과 결부시키면, 그는 새것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라서 체일 중에 일본의 아동문단을 보며 얻은 것일 수도 있다.

옥희는 그날부터 도로 병이 더하여 점차 열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늘 헛소리 갖치 『무지개나라로 무지개나라로』 하였습니다. 눈은 상혈이 되어 붉으면서 또 항상 씩꾸는 것 갖치 몽롱하였습니다.

진달내 노란 꽃이 지고 복사꽃이 만발할 때 푸르고 넓은 하늘은 다른 날보다 한층 더 맑고 정한 날 새벽 해가 동산에서 붉은 빛과 무한한 기운을 토하면서 올라올 때 옥희의 집 조그만 문에서는 적은 옥희의 장사가 나왔습니다.

옥희의 적은 령혼은 아마 아름다운 금붕어와 갖치 저-해의 나라 무지개나라로 올라가실 것이외다.<sup>92)</sup>

옥희는 알지 못하는 병으로 오래 병석에 누워 있는 소녀이다. 어느 봄날에 그녀는 금붕어를 들여다보다가 금붕어 여신들이 자신을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는다. 잠시 낯는 듯하던 병세는 재차 악화되어 옥희는 죽고 만다. 이처럼 고희승은 작품의 결말을 슬프게 마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결말은 다른 작품에서도 산견되어 어느 작가의 행복한 결말과 상치되어 유다르다. 그는 처음 발표한 작품치고 동화의 속성을 다분히 살리고 있다. 시작부에서 원경에 대한 묘사로부터 심리묘사로 초점해해 가는 것이나, 예정한 결말을 위해서 환상적인 부분을 도입한 것 등을 보아도 그가 동화에 지닌 관심은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오 헨리의 『마

92) 『동아일보』, 1923. 1. 1.

지막 잎새』를 보는 듯한 이 작품을 되풀이 읽노라면, 주제의식이 선명하지 못한 줄 금세 알게 된다. 한 소녀가 목쓸 병에 걸려 죽어가는 내용부터 감상적인 데다가, 작품 속에 설정된 갈등이 도드라지지 못하여 긴장미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그 점을 가리켜 교훈성을 삭제한 것이라고 두둔할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극적 긴장감은 서사의 진행이나 급박한 호흡으로 주제를 강조하기에 필수적이다. 이 점을 간과한 고한승이었기에 작품의 성취 수준은 미흡한 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런 아쉬움은 아래의 예시작에서도 검출된다.

여러 사람이 붓잡는 것도 도라보지 아니 하고 또 드러가고 또 드러가서  
결국 열여덟 명의 귀여운 동모들을 구해왔습니다.

오! 용감한 소년의 힘이어! 열여덟 명의 생명! 그 얼마나 귀대합니까?

그러나 불상한 일이올시다. 소년은 팔과 다리가 깨어져서 피가 흐르고 가  
삼이 맥히여 기절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소년의 몸을 얼싸안고 잇슬 쟈 소년은 귀운 엷는 눈을 스투  
르 쓰면서

『여러분! 엷덧습니까?』

하였습니다.

『참 용감하다. 위대하다. 열여덟 사람을 구하였다.』

그러나 소년은 적막히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한 사람을 구했느냐 백 사람을 구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껏 했습니까?』

『그렇타! 너는 네 생명껏! 네 힘껏 했다.』

『오! 대만족이올시다.』

하고 소년은 용감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다시 영원히 눈을 감었습니다.<sup>93)</sup>

93) 고한승, 「네 힘껏 해라」 (3), 『중외일보』, 1930. 4. 16.

이 작품은 원래 연재(『중외일보』, 1930. 4. 14-16)될 당시에 횡수를 표기하지 않고 3회분에서 끝났다. 고한승은 위 작품을 수정하여 『어린이』(1948. 6)에 다시 발표하였다. 보다시피, 서사의 긴밀도는 이완되어버렸다. 그의 동화작품들은 거개가 이와 같은 수준이다. 그는 여러 방면에 걸쳐 활동하느라 동화의 미적 장치에 대한 고려에 소홀하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동화작품은 특별히 논의할만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였다. 그밖에도 그는 전설 『백일홍 이야기 (1-2)』<sup>94)</sup>를 1923년 7월 동화회에서 구연하고 『어린이』(1923. 11-12)에 재발표하였으며, 민담 『호랑이는 무서우니라』(『조선일보』, 1926. 1. 1)를 개작하여 발표하였다. 이처럼 그는 기존 작품을 수정하여 자주 재발표하였다. 그것은 그의 창작동화가 소수란 사실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그가 동화회에 참석하여 구연한 작품들도 상당 부분 중복될 터이다. 그에게는 문학이 절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가 1927년 상재한 한국 최초의 동화동극집 『무지개』(이문당)조차 “여기에 실린 동화들 역시 모두 창작동화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sup>95)</sup>고 평가될 만큼, 그의 동화가 지닌 가치는 높지 못하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그가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천착하여 전문화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

그 외에 고한승은 고마부라는 필명으로 1934년 1월 『조선중앙일보』의 신춘문에 희곡 부문에 『명암 이중주』로 3등 당선하였다.<sup>96)</sup> 이 작품은 1월 23일자에 원문이 수록되었으나, 중략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해독이 어렵다. 특이하게도 그는 다다이즘과 연관된 글을 발표할 당시에 썼던 필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개성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문단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 마음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것은 일간지가 아니라 『삼천리』라는

94) 이 작품은 북한에서 나온 『1920년대 아동문학집 (2)』(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p.132-140)에도 수록되어 있다.

95)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p.153.

96) 『조선중앙일보』, 1934. 1. 1.

문예지에 당선 인사를 광고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해 4월 그는 『별건곤』에서 공모한 제2회 유행소곡 공모에 신민요 『베 짜는 처녀』로 1석에 당선되었다.<sup>97)</sup> 이 당시에 신민요가 유행하는 줄 안 고한승은 대중가요의 작사에 힘을 기울여 고마부라는 필명으로 33곡의 대중가요를 작사했다.<sup>98)</sup> 이처럼 그는 문재를 한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방면에 소비하였다. 그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희곡을 발표한 것이나, 생소한 유행가 가사로 당선된 것은 개성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문학에 대한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는 실존적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전설 『아름다운 라인강』(『개벽』 제50호, 1924. 8. 1)과 소설 『죽염의 무도』(『별건곤』 제10호, 1927. 12. 20) 등, 창작물의 발표보다는 외국 작품을 번역한 것도 존재의 알림 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 Ⅲ. 결론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고한승은 초창기 문단 형성에 공을 남겼다. 특히 그는 연극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 희곡 작품을 쓰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문학관에 뛰어들었다. 1924년에 그는 다다이즘에 경도되어 전신자 역할을 자처하였고, 스스로 다다이스트인 양 행세하였다. 그는 일본의 다카하시 등의 방한을 성사시켜 식민지에 다다이즘을 확산시키려고 했다가 그만두었다. 스스로 작

97) 이 노래는 다음과 같다. “길주나 명천 땅은 마포니는 곳/꽃가튼 아가씨들 베틀에 안저/이팔의 고혼 꿈을 가다듬으며/은근한 마음씨로 베를 짠다네/베틀에 섬섬옥수 오르나릴 때/수집은 아가씨의 마음도 트네/바리안 고혼베로 열필을 짜야/비단옷 작만하고 님마저가네/기나긴 밤을새며 틀우에 안저/등잔불 도두고서 베짜는 처녀/한번본 그림자를 맘에그리며/한숨과 성화로서 시름을 짜네”(『별건곤』 제72호, 1934. 4. 1, p.22)

98)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한국대중가요사』 I, 2003, p.371.

품을 발표하여 선도하지도 못했고, 다다이스트에 부합되는 행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지도 못했다. 그런 탓에 그는 주장으로 일관하다가 불과 2년 만에 다다이즘에 대한 공부를 중단하고 말았다. 그가 진지하게 다다이즘을 수용하고 작품화하느라 품을 들였다면, 한국의 근대시사는 윤택해졌을 것이다.

고한승은 시, 소설뿐 아니라 대중가요의 작사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초기에 발표한 극본이나 소설에서 선보인 가능성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함량 미달이어서 문단에 충격을 주기에는 강도가 약했다. 그는 색동회에 참여한 것을 기화로 소년운동과 아동문학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역시 그의 문학적 집중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에 그는 개성으로 돌아가서 상당량의 부를 축적하고 세속적 출세의 길을 걸었다. 일제에게 협력하여 부의원과 중추원참의 등을 지냈고, 비행기회사를 설립하며 이재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고, 반민특위에 불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은 그의 행동을 구속하였고, 신극운동에 투신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 걸쳐 활약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관심권 밖에 놓이도록 작용하는 빌미가 되었다.

**【참고문헌】**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2.
- 박인기, 『한국 현대시의 모더니즘연구』, 단국대출판부, 1988.
- 마해송, 『나와 색동회 시대』, 『신천지』 제9권 2호, 1954. 2, 158면.
- 『보성백년사』, 보성고등학교, 2006.
- 유민영, 『우리 시대 연극운동사』, 단국대출판부, 1996.
- 이봉구, 『명동백작』, 일빛, 2004.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 정상균, 『다다혁명운동과 이상의 오감도』, 민지사, 2011.
- 정인섭, 『색동회어린이운동사』, 학원사, 1975.
- 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5.
- 최명표,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2011.
-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한국대중가요사』 I, 2003.
-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 IV, 문학과지성사, 1989, 592면.
- 나기, 『한국의 다다』, 『다층』, 2001. 여름호, p.242.
- 사나다 히로코, 『고한용과 일본 시인들-교유관계를 통해서 본 한국의 다다』, 『한국시학연구』 제29호, 한국시학회, 2010. 12, p.67.
- Tristan Tzara · André Breton, 송재영 역, 『다다/쉬르 레알리즘 선언』, 문학과지성사, 1994.

Abstract

## Go Han-seung's Literary Path

Choi, Myoung-Pyo

Go Han-seung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Korean literary world. Especially, in 1924, he voluntarily played the roles as a transmitter of Dadaism and behaved as if he were a Dadaist. However, he did not publish any work based on Dadaism and never showed any behavior like a Dadaist. Because of this, he just adhered to the insistence and quitted Dadaism just after two years. As he released poems, novels, scripts, or children's literature, he also wrote words for pop music, too. Working in so many different areas, he could not focus on one thing and produce any distinctive outcome.

Returning to his hometown, he accumulated wealth so much and walked through the path to secular success. Being pro-Japanese, he once worked as a congressman and also built a plane company. However, after the emancipation, his dream vanished, and he was punished as an anti-national betrayer. After that, he disappeared without any trace. This study traces and suggests the process of how he reached the literary breakdown.

Key-words : Dadaism, children's literature, consumption of literary talent, Gaeseong, pro-Japanese.

최명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 2동 1201호

전화번호 : 010-3652-4730

전자우편 : fool1222@chol.com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